칩 부족 완화에 가동률 회복 전망 4분기 실적 회복… 부품주 최선호

metro 관심종목

만도

반도체 대란에 부품사 실적 약세
ADAS 앞세워 전기차 협업 확대
4분기 영업이익 46% 성장 전망
자율주행 솔루션 사업 성장 가속

자동차 부품 계열사 만도가 4분기부터 가동률 회복에 따른 점진적 실적 개선을 이룰 것이란 분석이다.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로 완성차 업체가 생산 차질을 겪었으나 칩 부족 문제가 완화되면서다. 증권업계는 만도를 부품주 톱픽(최선호주)으로 꼽았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6일 만도는 전 거래일 대비 2200원(3.68%) 하락한 5만76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만도의 주가는 올해 1월 8만9000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최근 5만5000원~6만5000원의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라 부품사 전반의 실적 약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3분기 만도는 매출액 1조4400억원, 영업이익 5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 19% 감소했다. 다만, 3분기 누적 수주액은 9조3000억원으로 연간 목표인 8조3000억원을 초과

〈만도 목표주가〉

증권사	목표주가
키움증권	10만원
한화투자증권	9만1000원
IBK·하이투자·메리츠·신한금융투자	8만5000원
이베스트투자증권	8만1000원
유진투자증권	7만6000원
신영증권	7만5000원

달성한 상태다.

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4분기 실적은 매출액 1조6600억원, 영업이익 778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각각 15%, 46% 성장을 전망한다"며 "4분기부터 가동률 회복에 따른 점진적 실적 회복이 기대되고, 양호한 수주를 바탕으로 전기차 업체와의 협업 확대를 통해 2022년 양호한 외형 및 이익 성장을 전망한다"고 밝혔다.

성장을 위한 조건으로는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부문의 성장성과 주요 전기차 업체향 부품 공급이 꼽혔다.

김민선 키움증권 연구원은 "ADAS는 연중 반도체 수급난의 영향이 컸지만 구조적인 수요 증가, 고객사 다변화, 자율주행 Lv4+ 센서 양산 등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상반기 주요 전기차 업체인 미국·중국 증설 물량 수주에 이어 최근에는 픽업트럭 제동장치 수주에 성공해 공급을 이어갈 전망이며 해당 업체의 내년 생산은 150만대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증권사의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살펴보면 키움증권이 10만원으로 만도의 목표주가를 가장 높게 책정했다. 이어 한화투자증권 9만1000원, IBK·하이·메리츠·신한금융투자 8만5000원, 이베스트투자증권 8만1000원, 유진투자증권 7만6000원, 신영증권 7만5000원 등의 순이다.

한편, 남은 과제는 HL클레무브의 성장성 입증이다. 만도는 오는 12월 2일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HL클레무브의 성장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만도는 지난 9월 자율주행·모빌리티 사업 부문을 신설 법인인 만도모빌리티솔루션즈(MMS)로 물적분할했다. HL클레무브는 MMS와 지난 3월 만도가 인수한 자율주행·전장 부품 기업인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MHE)가 통합해 만들어진 자율주행 전문 자회사다. 합병 후 만도는 HL클레무브의 지분율 100%를 유지한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물적분할을 앞둔 HL클레무브 출범 이후, 자율주행 솔루션 비즈니스도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6일 이호형 은행연합회 전무(왼쪽부터), 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 김동회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박영석 중요지표관리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승철 한국자금중개 사장이 '한국무위험지표금리 산출·공시 오픈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산출·공시 신뢰·투명성 확보 예탁원 '무위험지표금리' 도입

중요지표관리위, 업무전반 관장

한국예탁결제원이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산출·공시 업무' 개시를 알리고, 산출·공시시스템의 성공적인 오픈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2019년 6월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출범 이후 무위험지표금리(RFR) 개발 등 지표금리 개혁 과제를 추진해 온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및 유관기관, 금융회사 등의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무위험지표금리(RFR·Risk-Free Reference Rate)는 무위험 투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론적 이자율로서 신용 및 유동성 위험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평균 자금조달비용에 해당한다.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은 금융위와 한은이 공동으로 출범했다. 주로 ▲대체지표 개발 ▲제도개선 ▲시장정착 ▲리보금리 중단 대응 등 지표금리 개혁 과제를 수행했다.

금융위는 금융거래지표법에 따라 지난 9월29일 한국무위험지표금리를 중요지표로, 11월24일 예탁원을 중요지표의 산출기관으로 각각 지정했다. 예탁원은 산출·공시업무의 신뢰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조직인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

중요지표관리위원회는 독립성·책임성을 가지고 산출·공시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이번 한국무위험지표금리 산출·공시업무 개시는 2012년 리보(LIBOR) 담합 스캔들 이후 호가가 아닌 실거래 기반의 무위험지표금리 개발을 추진해온 국제적인 지표금리 개혁 흐름에 부응하는 것이다.

예탁원은 앞으로 한국무위험지표금리가 이자율스왑, 변동금리부 채권(FRN) 등의 신규계약 체결 시 준거가 되는 지표금리로 사용할 수 있고, CD금리의 산출중단·신뢰도 하락 등 비상시 대체금리(Fallback Rate)로도 사용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미경 기자

한화투자證, 커뮤니케이션 대상 '우수상'

블로그·카페 ESG콘텐츠 우수평가

한화투자증권이 '2021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블로그 및 카페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2021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뉴욕페스티벌 등 국내외 정부 기관과 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다.

한화투자증권은 공식 블로그 '라이프 포트폴리오'에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바른 투자문화를 알리는데 기여했다는

김종술 한화투자증권 커뮤니케이션팀장(왼쪽)이 '2021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뉴욕페스티벌 한국대표부 배석봉 상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식이 처음이라면, ESG투자' 시리즈를 통해 국내외 주요 ESG 관련 인덱스와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투자자들에게 쉽고 유익한 ESG투자 가이드를 마련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한화투자증권은 바른 투자문화 정착과 함께 ESG경영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1월 한화 금융계열사와 함께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고 국내외 석탄발전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하지 않는 한편 태양광이나 풍력 등 친환경 관련 자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다.

또한 7월에는 ESG 위원회를 신설해 회사의 ESG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 사항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

과천주암 등 신혼희망타운 3차 사전청약

분양 캘린더

12월 첫째 주 전국 8533가구 분양

12월 첫째 주에는 전국 12곳에서 총 8533가구(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민간임대·신혼희망타운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분양을 시작한다.

28일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3차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이 시작된다. ▲과천주암(C1·C2블록) 1421가구 ▲시흥하중(A1·A4블록) 751가구 총 2곳에서 진행된다. 과천주암지구는 북쪽 양재천을 경계로 서울 강남권과 맞닿아 있다. 시흥하중지구는 서해선 시흥시청역이 가깝다. 이 역사는 향후 신안산선(2024년 개통예정)과 월곶판교선(2026년 개통예정)의 환승역으로 개발된다.

사전청약 물량(2172가구)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량(5674가구)은 오피스텔로 공급한다. 특히, 교통망 개선이 기대되는 단지들이 속속 보인다. 경기 파주운정신도시에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 오피스텔의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이 단지는 GTX-A노선(2024년 개통예정)의 수혜가 예상된다. 대전 도안신도시에 위치한 '대전 도안 센트럴 아이파크'도 청약을 진행한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예정)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견본주택은 '힐스테이트 소사역',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 '스타레지스 연동' 등 10곳에서 개관하며 28일에는 '탕정역 예미지'의 견본주택이 개관한다. 당첨자 발표는 16곳, 계약은 11곳에서 진행된다.

/정연우 기자 ywj964@

지난 26일 NH투자증권이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제2회 빅데이터 경진대회 '데이터, 문화가 되다' 쇼케이스 및 시상식을 진행했다.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이사(오른쪽 두번째)와 임직원, 경진대회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투자증권

NH투자證 대학생 빅데이터 경진대회 성료

NH투자증권은 제2회 빅데이터 경진대회 '데이터, 문화가 되다'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28일 밝혔다. 발표회와 시상식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파크원 NH금융타워)에서 개최했다.

NH투자증권 '데이터 문화가 되다'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빅데이터 경진대회다. 대학(원)생들에게 금융 실무 데이터 분석 기회를 제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확보하고, 역량 있는 디지털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대회는 알고리즘 개발 역량과 비즈니스 관련 아이디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데이터 결합을 통한 주식 보유기간 예측 및 서비스 아이디어 제안'을 공모 주제로 운영했다.

이번 대회는 8월 23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총 3개월에 걸쳐 진행됐으며, 국내외 109개 대학의 744개팀이 지원했다. 이 중 50개 팀이 예선을 통과했으며, 본선 과정을 통해 16개 팀을 선발했다. 이 중 상위 6개팀을 대상으로 발표회를 진행해 최종 수상팀을 확정했다.

시상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했으며, 최종 대상은 성균관대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AVCD' 팀(이진모, 이은서, 임주은)이다.

총상금은 5000만원 규모다. 대상 1팀 1000만원, 우수상 2팀 각 500만원, 장려상 3팀 각 300만원, 입선 10팀 각 100만원 등이다. 수상팀에게는 NH투자증권 입사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 대상과 우수상을 받은 팀에게는 체험형 인턴십이 추가로 제공된다.

/박미경 기자